

## 면접고사문제 <연극(연출·스텝)>

### 출 제 문 제

#### <문 제>

저녁. 스톡만 박사의 거실.

[빌 링] 벌써 다 드셨어요?

[히 일] 먹는 거야 뻔한 일 아닌가. 딸한테 집에 갔다구 해주게.

[카트린] 아버지! 가시는 거 아니죠?

[히 일] 볼 일이 있어서.

[카트린] 집에 가봤자 하실 일이 뭐 있어요. 계세요! 빌링 기자도 오셨구 흡스탓 선생님도 오실 거예요. 재미있을 거예요.

[히 일]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다. 푸주간 주인이 니가 불고기감을 잔뜩 사갔다고 해서 와 본 거야. 잘 먹고 간다.

[카트린] 아뵤 돌아올 때까지 만이라도 좀 계세요. 산책 갔다가 금방 와요.

[히 일] 담배 잎 좀 채워도 되겠지?

[카트린] 그럼요. 어, 사과 좀 가져가세요. 과일두 늘 사드시구 그러세요.

[히 일] 내 다 알아서 하마. (초인종 소리)

[카트린] 흡스탓 선생님일 거예요. (문 연다. 시장 피터 스톡만 등장)

[카트린] 아주버님! 어쩐 일이세요!

[시 장] 지나가던 길이라서 그냥 들렀다. 이게 누구야. 히일씨 아뇨.

[히 일] 아, 시장님! (히일 퇴장)

[카트린] 저희 아버지한테는 신경 쓰지 마세요, 아주버님. 나이 드시더니 점점 더 해요. 저녁 진지 안 드셨지요?

[시 장] 아니, 생각 없어요. (빌링이 식당에서 나오며 인사 한다.)

[카트린] 저녁 초대했어요.

[시 장] 아, 그래요? 난 저녁에 더운밥은 먹지 않아요. 위에 부담이 가서.

[카트린] 제 집에서 한 끼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...

[시 장] 괜찮아요, 차하고 빵 한 조각이면 돼요. 건강에두 좋구 돈두 안 들구.

[카트린] 저희가 돈을 물 쓰듯 쓴다구 나무라시는 거죠?

[시 장] 그런 뜻은 아니야. 집에 안 계신가?

[카트린] 아이들하고 산책 나갔어요.

[시 장] 밥먹구 바로 산책 나가면 건강에 나쁘다던데... (문 소리) 이제 돌아오는군.

[카트린] 글썄요, 아직 이른데... 들어오세요. (흡스탓 등장) 흡스탓 선생님!

[흡스탓] 늦어서 미안합니다. 인쇄소에 들렀다 오느라구요. 아니 이런, 시장님 안녕하십니까?

## 출 제 문 제

[시 장] 흡스닷 주필께선 기사 때문에 오셨소?

[흡스닷] 아, 아닙니다. 오늘은 그냥 놀러왔습니다.

[시 장] 아, 그래요. 내 동생이 거, 뭐요? “민중 자유 해방신보” 랄까? 에 없어선 안 될 필자가 되었던구만.

[흡스닷] “민중매일신보“ 입니다. 박사님은 진실을 밝혀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신문을 빛내주십니다.

[시 장] 진실이라! 음. 그래요?

[카트린] 뭐 좀 드시죠?

[시 장] 내 동생이 당신네 신문을 이용하는 걸 비난하는 건 아니요. “배우들은 박수를 제일 많이 쳐주는 관객을 바라보게” 돼 있는 거요. 내가 반대하는 건, 사실은, 신문이 아녜요.

[흡스닷]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. 시장님.

[시 장] 언론에선 요즈음 주민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.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보이는 거예요. 모두가 하나같이 믿고 있는 것.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

[흡스닷] 압니다. 히스틴 온천이죠.

[시 장] 보통 온천이 아녜요. 이 마을의 영혼을 바꿔버린 그 기가 막힌 온천. 히스틴 온천은 우리 마을의 지도를 바꿔 버렸어요.

[카스틴] 아범도 그런 애길 했어요.

[시 장] 모든 게 확 달라졌어요. 땅값도 뛰고, 하루가 다르게 거래가 늘고 사업은 번창하고...

[흡스닷] 실업이 사라졌습니다.

[시 장] 그렇지. 부자만 세금을 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.

[흡스닷] 벌써 예약이 들어온다면서요?

[시 장] 매일 들어오고 있지. 아주 고무적이야. 말 두 못해.

[흡스닷] 잘 됐습니다. 박사님의 글이 때 맞춰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.

[시 장] 아니 내 동생이 뭘 또 새로 썼오?

[흡스닷] 새 건 아니구요. 지난겨울에 온천을 추천하는 글을 기고하셨는데 제가 좀 밀어 댔었습니다.

[시 장] 뭘, 문제가 있어서?

[흡스닷] 아뇨. 봄이 와서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계획 할 때 터뜨릴려구 묵혀뒀었죠.

[시 장] 거, 잘 생각했어. 주필다운 생각이야.

[카트린] 온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많나 봐요. 매일 같이 뭘 생각해내요.

[시 장] 그래야지. 온천 때문에 월급을 받고 있는데 당연하지.

[흡스닷] 월급 때문에 그러시겠습니까? 커스틴 온천을 개발한 장본인이 박사님 아닙니까?

[시 장] 장본인? 아니 온천개발이 어디 한 사람이 해 낼 수 있는 일인가?

[카트린] 그럼요, 맞는 말씀이죠.

[흡스닷] 전 그저,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...

[시 장] 하지만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기자면,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하는 거요. 이 집안 사람

## 출 제 문 제

들만이라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지. 그리구 언론두 말이야...

[카트린] 아주버님, 저흰, 그런 뜻이 아니라... 홉스탯 선생님, 어서 가서 식사 좀 하세요. 박사님은 곧 오실 거예요.

[홉스탯] 네, 그럼 가서 좀 들겠습니다. (식당으로 간다)

[시 장] 거 참 할 수 없군. 배우지 못한 집 출신들은 언제 어디서구 티가 난다니까.

[카트린] 어, 지금 왔네요. (스토크만 박사 등장)

[스토크만] 여보! 여기 또 한 분이 오셨어, 선장님이야! 옷을 여기다 거세요. 아, 그렇지 코트를 안 입으시지. 애들아 들어가자. 너희들 저녁 먹은 거 다 꺼졌겠다. 들어갑시다. 불고기 재워둔 거 한번 구경해 보시우. (호스터 선장을 이끌고 식당으로 들어간다. 아일리프와 모텐도 함께 들어간다.)

[카트린] 여보...

[스토크만] 아, 형님, 잘 오셨습니다. 앉으세요.

[시 장] 곧 가야한다.

[스토크만] 무슨 말씀이세요. 한 잔하고 가셔야죠. 여보, 한 상 봐 뵙쇼.

[카트린] 네. 준비 다 해 뵈어요.

[시 장] 술하자구? 술판엔 끼고 싶지 않다.

[스토크만] 술판이라뇨?

[시 장] 저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즐기다니 일났구나, 일났어.

[스토크만] 왜, 전 친구들 불러다가 즐기지도 못합니까? 뭔가 하겠다는 욕망으로 가슴이 타고 있는 젊고,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. 저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흔들어 놓을 테니 두고 보십쇼.

[시 장] 뭐? 뭘 흔든다는 거야?

[스토크만] 기다려 보세요.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. 형님이나 저 같은 구세대들은 뒤에서 구경이나 하다가...

[시 장] 구세대라고 말 들어 본 적 없다.

[스토크만] 형님,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세요.

[시 장] 온천에 관한 일은 정당한 통로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다뤄야 하구 합법적으로 소집한 이사회를 통해서 다뤄야 한다. 내가 온천 개발이사회 이사장이란 걸 잊어먹지 말아라.

[스토크만] 그걸 누가 몰라요?

[시 장] 그만 가겠다. 제수씨, 안녕히 계세요. (퇴장)